

##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속의 정부로”

###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퇴

▶관련기사 3·4·6면

“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국민과 상처받은 젊은이에 죄송 가족 곁에서 고통 함께 감내 도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 임명 후 국정은 심하게 흔들렸고 국론은 분열됐다. 여권의 지지율은 곤두박질했고 결국 국 사퇴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에 사과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갈라진 국민을 통합해야 할 책무를 떠안았다. 청와대도 냉정하게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속의 문재인 정부로 다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목소리로 들린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발표였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평생의 사명였고, 오랫동안 고

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분하고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를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

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조 장관은 “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를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법무부 나가는 조국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

## 어등산 관광단지 이행보증금 두고 또 ‘삐걱’

우선협상자 서진 측 분할납부 요구 광주시 “민투법” 원칙 지켜야 거부 추가 협의 거쳐 최종협약 여부 결정

광주시의 숙원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측과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진건설측이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공간을 늘리는 대신 지역상생방안을 마

련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를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토록 공고했다.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의 전철을 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를 지키려면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6억원 가량)를 내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진건설측은 협상과정에서 최종 협약 체결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날 도시공사측에 ‘이행보증금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 공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 의견을 받은 도시공사는 이번주 중으로 서진건설과 추가협상을 거쳐 이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진건설측이 이행보증금 분할납부를 고수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검토 결과 이행보증금 납부는 ‘민투법’에 규정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이날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도시공사에 전달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조만간 당사자들 간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 희망나눔 자선콘서트

오늘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

www.seoyeong.ac.kr

## 우리나라 전기산업을 이끌 젊음과 열정의~~





# SEOYEONG University 전기과

- 전기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사회맞춤형 전기공학교육
- 전기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
- 사회맞춤형 기반 실습교육을 통한 가공배전교육
- 체계적인 취업관리 프로그램(4S4C)교육
- 전문적인 학생중심 지도교육





**서영대학교 전기과**  
SEOYEONG UNIVERSITY

☎(062)520-5083 http://seoyeong.ac.kr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1

☎입학상담 : (062)515-5012~3